

잇다른 상괭이 죽음에도 보호대책 '부족'

올해 사체 40마리 발견...부패 진행 안 된 사체에 제주 서식 가능성도 안강망 조업 주요 사인...혼획저감장치 보급 계획 '정확한 실태조사 필요'

웃는 돌고래로 알려진 해양생물보호종 상괭이가 잇따라 목숨을 잃으면서 미소 짓지 못하고 있다. 이달 제주도 해안가에서 발견된 사체만 9건. 주요사인으로 바다 속에 설치된 그물이 지목됐다. 대책으로 2021년 보급 예정인 혼획저감장치를 두고 어민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상괭이는 2016년 해양생물보호종으로 지정됐다. 그런데 상괭이 서식 및 실태 관련 조사는 3년전인 2013년에 이뤄진 게 마지막이다. 제주해역에서도 상괭이가 서식하는 현황이 파악되고 있으나 이들을 지키기 위한 체계적인 보호대책은 부족한 실정이다.

▲부패 안 된 상괭이 사체...제주해역 서식 가능성

14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관내 해안가에서 발견된 상괭이 사체는 2018년 8마리, 지난해 44마리, 올해 들어 현재까지 40마리다. 최근 사체 특장 중 하나는 부패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다.

지난달 30일 제주시 구좌읍 해안가에서 발견

된 상괭이의 사체는 부패가 거의 진행되지 않은 상태였다. 전문가는 이처럼 부패가 진행되지 않은 사체가 잇따라 발견됨에 따라 제주해역에 상괭이가 살고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상괭이의 주요 사인 중 하나는 안강망 조업이다. 안강망은 긴 주머니 모양의 통그물을 조류가 빠른 곳에 설치해 어류를 잡는 방법이다. 도내 어선 중 안강망 조업 허가를 받은 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분 전남·경남 선적인데 최근 들어 제주해역에서도 안강망 조업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병엽 제주대학교 고래·해양생물보존연구센터장은 "제주항~추자도 해역에서 안강망 조업이 확인되고 부패가 진행되지 않은 사체 발견 사례를 보면 상괭이의 제주해역 서식 가능성이 크다"며 "하지만 정확한 개체 및 실태조사가 없어 단편적인 보호대책에만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태조사 부족...혼획저감장치 보급 난색

국립수산과학원은 2013년 자체 자원평가

조사를 통해 서해연안근해에 상괭이가 1만 3000마리가량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이후 서식실태를 알 수 있는 관련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상괭이가 해양생물보호종으로 2016년 지정됐지만 보호대책 마련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조사 연구가 부족한 셈이다.

국립수산과학원 관계자는 "자원평가조사를 즉각 시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제주도 해양당국도 상괭이의 잇단 죽음을 인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조사는 해양수산부가 권한이라는 이유로 선제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해양수산부는 안강망 혼획으로 상당수의 상괭이가 죽는 것으로 보고 2021년 혼획저감장치를 어선에 보급할 계획이다. 보급 대상 어선은 640여 척이다. 하지만 혼획저감장치 설치로 안강망에 잡힌 다른 어류까지 빠져나갈 수 있다며 일부 어민들이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혼획저감장치 보급 예산을 확보했지만 보급 완료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돌염전 뒤덮은 파도 14일 오전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 해안도로에 거센 파도가 휘몰아치면서 돌염전을 덮치고 있다. 임창덕 기자 kko@jejuilbo.net

제주시 서부 복합체육관 건축 설계 당선작 발표

제이유·티에스에이 공동 제출작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 건축 설계를 공모한 결과 제이유건축사사무소(대표 박제우)와 제이티에이건축사사무소(대표 김태성)의 공동 제출작을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9월 4일부터 공모를 통해 응모된 9개 작품에 대해 공공건축가의 사전 검토와 도내·외 건축관련 전문가 8명의 심사

위원회의 1차 도면검토, 2차 발표 심사 등을 거쳐 당선작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당선작은 전체적으로 지형과 주변과의 관계가 조화롭게 이뤄졌으며 진입공간의 여유 확보, 외부 공간 조성 등이 높게 평가됐다.

특히 저층부를 상부의 매스와 분절해 테라스 공간을 확보한 점과 좌·우측의 레벨을 연결해 보행동선을 제안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2위는 ㈜선파트너스건축사사무소, 3위는

㈜아란건축사무소앤파트너와 ㈜엠케이플러스의 공동응모, 4위는 ㈜중도건축사사무소와 유원건축사사무소의 공동응모 작품이 각각 선정됐다.

1위로 뽑힌 당선업체에는 용역비 약 13억 8000만원 상당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우선협상권이 주어지며, 2위부터 4위까지는 관련 규정에 따라 9000만원 범위에서 보상금이 차등되게 지급될 예정이다.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은 공사비 282억원이 투입돼 연면적 8800㎡,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연동·노형·외도지역에 조성될 예정이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

“청정환경국 폐지 심사숙고해야”

서귀포시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기자회견 열고 호소

서귀포시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협의회장 임성우)는 14일 “지난 1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을 폐지해 안전도시건설국으로 통합'하는 퇴보된 조직 개편이라는 점에서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귀포시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는 이날 오전 시청 기자회견에서 회견을 갖고 “서귀포시는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자연유산과 세계지질공원, 생물권보전지역 등이 산재돼 있는 청정환경지역임에도 이를 활용한 디딤돌은커녕 폐지하면서 시민들에게 커

다란 실망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의 염원을 담아 어렵게 신설된 청정환경국을 이렇다할 명분도 없이 시행된 지 불과 2년여 만에 폐지했다”며 “제주도의회는 시민단체를 비롯한 많은 지역의 사회단체들이 조직 개편안 보류 또는 보안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충분히 감안해 15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심사숙고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귀포시가 안고 있는 청정자연환경을 지키려는 시민사회단체의 진정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한국현 기자 bomok@jejuilbo.net

서귀포시, 지속가능 교통도시 6년 연속 우수기관

국토부, 39개 도시 중 선정

서귀포시는 국토교통부가 한국교통연구원에 위탁해 매년 평가하고 있는 지속가능 교통도시에 6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속가능 교통도시란 지자체의 교통안전도 향상, 정책적 노력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교통 혼잡비용 절감 등 교통 부문의 환경적·사회적·경제적 속성을 종합해 평가한다.

평가는 특별·광역시와 인구 30만명 기준

등 4개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서귀포시는 올해 평가에서 인구 10만명 이상, 30만명 미만 도시(라그룹) 39개 도시 중 우수 도시로 선정됐으며 주차수요 관리를 위한 노력, 교통안전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 교통인프라 구축 등 전반적인 교통정책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6년 연속 수상으로 지속가능 교통도시로서 명실상부한 도시답게 내년에는 최우수 도시로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현 기자 bomok@jejuilbo.net

남원읍, 꽃길 가꾸기 사업 '최우수'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2020년 주민참여 사계절 꽃피는 제주 만들기 사업'을 추진한 결과 총 9곳의 읍·면·동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최우수 부서로는 서귀포시 남원읍이, 우수부문에 제주시 조천읍, 서귀포시 안덕면이 선정됐으며 장려부문에 제주시 애

월읍, 건입동, 용담2동과 서귀포시 중앙동, 성산읍, 중문동이 최종 선정됐다.

최우수 부서로 선정된 남원읍은 수방사거리 및 남조로변 화단 조성 및 제주올레길 4코스를 중심으로 꽃길 가꾸기를 추진했으며 마을 안길 내 녹색쉼터공간을 마련해 관광객 및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

상하수도 민원 현장출동 서비스

서귀포시는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상하수도 민원 제로(ZERO)화를 위한 현장출동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상하수도 민원 현장출동 서비스는 5개반 11명으로 지원반을

편성해 365일 연중 무휴로 운영하고 있으며 수돗물 누수 및 단수, 하수 역류로 인한 악취, 오수관로 막힘, 맨홀과 손 등의 생활 불편 민원을 해소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11월말까지 민원 2444건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2435건을 당일 처리하면서 높은 처리율을 보이고 있다.

한국현 기자 bomok@jejuilbo.net

제주6차산업 인증 사업자분들의 좋은 소식을 축하합니다.

<p>농림축산식품부 3월의 농촌융복합산업인 선정</p> <p>양 흥 식 대표 농업회사법인(주)제주콜리산업</p>	<p>농림축산식품부 10월의 농촌융복합산업인 선정 국무총리표창</p> <p>김 숙 희 대표 제주생명농조합법인</p>	<p>2020년 한국관광공사 코리아 유니크 메뉴 선정</p> <p>성 주 엽 대표 주식회사 청원(생각하는정원)</p>	<p>2020년 제8회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농림부장관 최우수상</p> <p>홍 은 희 대표 제주한울영농조합법인(보름빛)</p>	<p>제2회 자청비 제주농촌문화상 농업경영부문</p> <p>부 정 선 대표 제주물마루민정학교 영농조합법인</p>	<p>국제슬로푸드협회 산하 슬로푸드 생물종다양성재단 맛의방주단체</p> <p>김 희 숙 대표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제11호 제주고소리술인인집</p>	<p>제10회 제주 수출인의 날 수출 장려상</p> <p>김 영 훈 대표 주식회사 일해</p>	<p>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상(여성농업인)</p> <p>강 미 회 대표 비자림농원</p>	<p>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상(유통가공)</p> <p>김 명 수 대표 농업회사법인(주)태반의정제주</p>
---	---	--	--	---	---	---	---	--

제주6차산업 인증 사업자분들의 좋은 소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제주농업농촌6차산업지원센터